

한국양계농협

조합합병 10주년 기념 계란소비홍보 행사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과 농협중앙회는 조합합병 10주년을 기념해 계란의 식품으로서의 우수성과 영양가치 홍보로 소비확대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농협 서울지역본부와 조합 신용점포에서 계란소비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직거래장터 내방 고객과 주택밀집 지역 주부 등을 상대로 하절기 계란 소비 및 홍보를 통한 농가계란 적체 해소를 해소하고, 농협생산 브랜드 홍보를 통한 매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직거래장터 내방고객에 대한 시식행사와 할인행사와 주택밀집 지역 주부층과 점포 내방고객에 대한 계란증정 행사 및 전단지 배부 기타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한 안심계란 광고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 대상 각종 정보제공을 통한 계란의 가치향상 및 소비확대, 안심계란 등 농협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오정길 조합장 폭염피해농가 위로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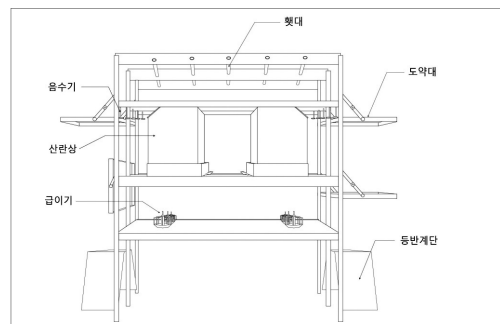
한국양계농협은 금년 여름 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도권지역 신한우 조합원을 비롯한 영남지역



과 호남지역 농가의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정길 조합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른 단전에 대비하여 더 이상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폭염으로 상당수의 농가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동물복지형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동물복지를 고려해 사육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자의 노동력을 줄여 줌과 동시에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표출이 가능한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은 층별로 사료급이기, 산란상, 햇대 등이

위치함으로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 평사사육에 비해 동일면적에서 약 2배 정도의 산란계를 사육할 수 있으며, 계란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집란장치와 닭들의 분을 치워주는 계분벨트 등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리자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도약대와 햇대 등의 구조물을 제공함으로써 산란계의 자연스러운 행동표출을 유도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술,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은 축산농장에서의 축종별 가축분뇨 배설량과 퇴·액비화 방법, 가축분뇨자원화 표준설계도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ias.go.kr/envi)를 통해 지속·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가축분뇨 퇴·액비화방법의 설치·운영방법이 수록된 가축분뇨자원화 표준설계도, 가축분뇨 관련 업체와 관련 시설에 대한 업체소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에서는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와 가축분뇨 자원화방법 등이 제시돼 축산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축종별 축산농가에서 매일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발생량을 사전 예측함으로써 농장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운영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가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경친화축산 농장선정에 사용되는 심사항목이 제시돼 농장 스스로 농장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프로그램이 설정돼 있다.

가축 폭염·단전 피해 예방 위한 현장기술지원단 뜬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대부분 30℃를 오르내리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이번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고온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양과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폭염과 정전으로 인한 가축사육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양, 환경, 질병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5개 지원반을 구성해 폭염 피해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진료와 사양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기술지원단은 폭염중점관리기간인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피해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인 7월 8일에서 8월 16일까지는 중점기술지원기간으로 설정해 현장기술지원반별로 축종에 따른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폭염 시 가축의 고온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이동이나 교배 등의 작업은 기온이 서늘할 때 실시하고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소 등 큰 가축은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몸에 물을 뿌려줘 체감온도를 낮춰주며, 신선한 물을 언제든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고온스트레스로 사료섭취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열량, 고단백 사료를 먹여 섭취량 감소로 인한 영양분을 보완해 주고 비타민과 광물질 첨가제 등을 사료에 섞어 먹이며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비치해 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3년도 상반기 성과분석회의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지난 7월 25일 경기 안양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도사무국장·검역사무소장 등 소속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상반기 성과분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가축방역의 최일선에서 맞은바 역할을 적극 수행한 위생방역본부 직원들의 노고로 '12년부터 현재까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근절, 소통의 문화 정착, 안전사고의 예방, 고객만족 우수기관유지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본부, 전화예찰요원 수의사 처방제 교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도본부장 이성식)는 지난 14일 전화예찰요원을 대상으로 '수의사



처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찰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처방제의 도입 취지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처방제 발급 및 동물약품 구입절차 △24시간 운영 처방제콜센터(1877-7002)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www.evet.or.kr) 운영 △공수의사를 통한 소규모 농가 진료지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전화예찰요원이 전화예찰 시 축산농가의 궁금증 해소 및 불편사항 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식육판매업HACCP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식육판매업소 HACCP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주최하고 기

준원의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축산물 공급의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와의 접점인 식육판매업소 HACCP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국민행복식탁시대를 연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7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2014년 1월 31일 부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용해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칭도 2014년 1월 31일부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유통분야 HACCP활성화 본격 시동(始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13일 대회 의실에서 식품·농·축산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원장 취임 1주년(취임일 : '12.8.17) 업무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축산물 안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접점인 식육판매점 등 「유통분야 HACCP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6월부터 「유통분야 HACCP활성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기준원장이

직접 매주 실적을 점검하는 등 기준원의 전사적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친환경축산협회

경기도지부 단합대회 가져

석희진 (사)친환경축산협회장은 50여명의 회원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경기도 포천 소재 토일농원에서 열린 협회 포천시지부 단합대회에 참석, 회원들을 격려하고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포천시지부는 그동안 아름다운 농장 조성 등 친환경축산 발전에 앞장서는 등 국내 친환경축산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른 농가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회원농가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2013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지난 7월 25일~ 26일 2일간 그랜드힐튼호텔(서울 흥은동 소재)에서 「2013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양사 및 관계자 4,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 건강을 주는 영양사'라는 주제 아래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식품영양 전문가로서, 또한 단체급식 관리자, 교육자, 상담자, 위생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 정립을 목표로 실시되었다.